

“젊은 선수들 열정·투혼...팀 잠재력 확인”



지난달 18일 합평 KIA 헬리콥터 필드를 찾아 선수단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맷 윌리엄스 감독.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윌리엄스 감독 마무리캠프 결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을 맡은 맷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달 17일 입국과 동시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둘러 본 후 “KIA를 ‘준비된 팀’으로 만들겠다. 내일부터 ‘내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음날 합평 기아 헬리콥터 필드에서 선수단 상견례를 마친 후 본격적인 마무리 캠프 지도와 취임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첫 공식 석상인 취임식에서는 “우승하기 위해 왔다”고 자신의 비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KIA에서 3주간 일정을 소화하고 14일 귀국한 맷 윌리엄스 감독은 미국에서 훈련 상황을 보고 받는 한편, 수석코치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 구단 등과 협의, 내년 스프링캠프 전략 구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3주 동안 마무리훈련 캠프를 지도한 소감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매우 많았다. 이런 선수들을 만난 것에 굉장히 기쁘고, 선수들의 열정 또한

뛰어나, 함께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 이러한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 내 꾸준한 강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스프링캠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마무리 캠프 성과는. 눈에 띄는 선수 있었는지.

“(배테랑들이 참가하지 않는) 마무리훈련 캠프의 특성상 모든 선수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또한 특정 선수를 꼽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훈련하는 상황에서, 한 선수만 꼽는 건 부적절하다. 대신에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기동력이 좋고 어리면서도 파워를 가진 선수들이 다수 확인한 게 소독이다. ▲마무리 캠프 기간 선수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칭스태프와 동료 선수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훈련을 즐기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스프링 캠프 때까지 선수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선수들에게 “스프링캠프 첫 날부터

정성 훈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또한 선수들 스스로 생각하는 비시즌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선수들도 제출한 계획표대로 비시즌을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엔 준비가 된 상태로 플로리다에 도착할 것이라 믿는다. ▲혹시 프리미어12 양현종 등판 경기 중계 보셨는지.

“양현종이 등판한 모든 경기를 직접 TV 중계로 시청했다. 양현종 선수가 좋은 투수라는 평가를 받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라이크 존 공략도 좋았고, 완급 조절 또한 뛰어났다.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는데, 대표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건강하게 돌아와 플로리다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미국전 선발투수로 나섰을 때 미국을 응원하진 신기 아닌지?) 그렇지 않다. (웃음)

100% 양현종 선수를 응원했다. (웃음) /박희중 기자

KIA 타이거즈 2020시즌 마운드 재정비

ML출신 애런 브룩스 영입

안정된 제구에 경기 운영 탁월 윌리엄스 감독과 ‘한술밥’ 인연



올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8시즌 동안 61승 47패 평균자책점 4.46을 기록했다.

KIA는 “애런 브룩스는 시속 140km 후반대의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투심 패스트볼을 섞어 던지며, 안정된 제구력이 강점이다. 또한 완급 조절을 통한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0시즌 활약할 새 외국인 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우완투수를 영입했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Aaron Lee Brooks·29·사진)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47만9천 달러 등 총액 67만9천달러에 계약(이적료 별도)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애런 브룩스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신장 194cm, 체중 105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활동했다.

올 시즌에는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으로 선발과 중간계투로 18경기에 출전해 6승 8패 평균자책점 5.65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47경기에 출장 9승 13패 평균자책점 6.49의 성적을

KIA 관계자는 “애런 브룩스는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본 선발투수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한 선수”라면서 “지난해부터 올 시즌까지 윌리엄스 감독과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에서 함께 뛰었는데, 영입 과정에서 윌리엄스 감독의 추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희중 기자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에서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멕시코전에서 열리기 하루 전날인 14일 일본 도쿄돔에서 훈련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뛰는 한국야구 오늘 멕시코 잡는다

김경문 감독 “멕시코전 라인업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대만전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동안 공식 팀 훈련을 했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에서 경쟁하는 6개 나라의 휴식일인 이날 팀 훈련만 진행했다.

슈퍼라운드 합산 성적 2승 1패로 3위를 달리는 한국은 15일 오후 7시 도쿄돔에서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과 대회 2연패 도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멕시코와 일전을 치른다.

멕시코는 3승 1패를 거두 일본과 공동 선두에 올랐다. 멕시코 역시 미국을 따돌리고 아메리카대륙 1위로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려면 한국을 눌러야 한다.

김 감독은 “멕시코에는 강한 타자도

눈에 띄고, 불펜 투수 중에서도 강한 투수가 보인다”며 “그러나 대비를 잘해 꼭 멕시코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타순은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신중하게 라인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먼저 열리는 경기에서 미국이 대만을 꺾고, 한국이 멕시코를 제압하면 한국은 사실상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

한국은 멕시코를 꺾으면 3승 1패를 올리고, 멕시코는 3승 2패로 슈퍼라운드 마친다.

한국이 16일 일본에 패하더라도 멕시코와 3승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멕시코를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러면 대만보다 높은 순위로 대회를 마감할 수 있다. 한국은 대만, 호주보다 높은 순위로 대회를 마치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위로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얻는다. /연합뉴스

사이영상 농쳤지만 亞 최초 역사 썼다

류현진, 亞 최초 1위표 획득, ML 사이영상 투표서 단독 2위...수상은 디그롬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이 한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수상에 실패했다. 그러나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1위 표를 받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류현진은 14일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발표에서 1위 표 1장, 2위 표 10장, 3위 표 8장, 4위 표 7장, 5위 표 3장(88점)을 얻어 단독 2위에 올랐다.

사이영상은 1위 표 29장, 2위 표 1장으로 207점을 기록한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이 받았다.

디그롬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았지만, 류현진이 1위 표 한 장을 가져가면서 만장일치 수상엔 실패했다.

류현진에게 1위 표를 던진 이는 캘리포니아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마크 위커 기자다.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는 2위 표 8장, 3위 표 8장, 4위 표 6장, 5위 표 4장 72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82%이닝을 소화하면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탈삼진 163개, 피안타율 0.234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승수에선 리그 6위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팀 에이스로서 다저스의 7년 연속 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앞장섰다.

또한 다저스의 정규리그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선 후, 생애 처음으로 빅리그 올스타에 선정돼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디그롬에게 탈삼진과 투구이닝, 피안타율에서 밀리며 사이영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진 못했다.

디그롬은 11승 8패, 204이닝, 평균자책점 2.43, 탈삼진 255개(전체 1위), 피안타율 0.207을 기록했다.

사이영상은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설적인 투수, 텐트 트루 사이영의 이름을 따 1956년 제정됐다.

사이영상은 미국야구기자협회 회원 30명의 투표로 정한다. 기자 한 명당 1위부터 5위까지 투수 5명을 뽑는데, 1위 표는 7점, 2위 표는 4점, 3위 표는 3점, 4위 표는 2점, 5위 표는 1점으로 계산해 합산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아시아 선수 중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 표를

얻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노모 히데오(일본), 왕첸밍(대만), 마쓰자카 다이스케, 다르빗슈 유, 이와쿠마 하사시(이상 일본) 등 우수한 아시아 출신 투수들이 도전했지만, 1위 표를 받지 못했다.

한국 선수 중 사이영상 투표에서 득표한 건 류현진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순위	선수	투표 수	점수
1위	제이컵 디그롬 (뉴욕 메츠)	29	207
2위	류현진 (LA 다저스)	1	88
3위	맥스 셔저 (워싱턴 내셔널스)	8	72

선수	평균자책점	승/패	투구이닝
제이컵 디그롬	2.43	11/8	204
류현진	2.32	14/5	182.2
맥스 셔저	2.92	11/7	172.1